

두서없는 이야기

새 곳으로 이사 가기 때문에 생기는 일 중 하나는 여러 해 동안 읽지 않고 모은 것을 발견하는 것 입니다. 질문: 최초에 이것을 왜 모았는가?

그러나 제가 모으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를 여러분과 나눌 가 생각 했습니다. 이 시는 대부분 다른 세기 (1900 년 후기)의 것으로 아직도 활기가 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약간 교정한 이 시들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프란시스에게 사랑을 드리며

이제 우리는, 당신과 나, 21 세기 그리고 우리는 13 세기 수사를 따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지요.

13 세기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기는 가장 "훌륭한" 세기로 불리지요. 그러나 나는 지금 살고 있지요!

복음서 "좋은 소식" 말씀은 예수님과 같이 오래되었고 사람들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갈 색옷 차림의 이 한 사람이 입증하려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씨의 이 작은 사람이 무엇입니까? 왜 소란을 떠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특별한 사람들을 담고 있는 역사 안에서 한사람이 무엇이 그렇게 특별합니까?

프란시스는 복음서, 그 모든 것- 마태, 마르코, 루가와 특히 요한복음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는 걱정 하지 않았습디다.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셨고, 프란시스가 그리 했습니다. 길가는 데 아무 것도 지니지 말라고 하셨고 프란시스는 지니지 않았습디다.

극도로 단순하고, 심지어 불가능 혹은 최소한 터무니없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프란시스가 실행한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봉사하기 위하여 너희 가운데 왔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지 짐작하시지요. 프란시스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의 제자들을 "보다 작은 수사" 그의 '작은 형제들' 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나의 형제들은 '작은 자'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큰 자가 되지 않아야 하니까요."

"힘" 이 인간의 많은 문제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무력하게 느껴질 때 굉장히 멋진 일이지요. 우리는 '큰 형제' 대신 작은 형제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와 같이 복음적 삶은, 프란시스 성인에 의하면, 복음 전부를 진지하게 그대로 받아드리는 것 입니다!

예수님과 결합하여

주먹이
일치인가요?
평화의 표시가
일치인가요?
같이 행진하는 것이
일치인가요?
같이 축하하는 것이
일치인가요?
시리아의 평화 회담이
일치인가요?
조폭간의 싸움이
일치인가요?
무관심 - 냉담이
일치인가요?
비난과 험담이
일치인가요?
"관여하지 말라"가
일치인가요?
"남에게 맡기게"가
일치인가요?

"그들이 모두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 당신이 제 안에 계시고 제가 당신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래서 세상이 저를 보내신 분이 당신이란 것을 믿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계시고, 그분과 있는 우리들은 서로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기본적으로 되돌아가서 "나와 함께 하지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성프란치스코와 복음이 말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평화사절단, 데이케어 센터, 정치기관들, 대 성당들, 아주 잘 구성된 형제회들, 2 개 혹은 4 가지종류 TV 세트, 최신 아이폰, 아주 중요한 트레이닝, 새로운 헤어스타일, 오토사이클, 프롬 데이트, 자동차, 새로운 친구들, 휴가, 최신형 컴퓨터, 새 아파트, 많은 돈이 들은 은행 구좌, 건강 보다 더 중요 합니다.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들은 각자 삶에서 **예수님이 넘버원** 이라는것을 알아야 되며 마음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 나와 함께 하지않으며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는 말, 당신이나, 당신의 형제 자매,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당신의 넘버원 이며 아니면 무엇이 당신의 넘버원 이라고 대답 하시겠습니까? 정직하게 말입니다.

이웃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로 가는길에 강도를 만나 구타를 당해 거의 반신불구가 되어 버려졌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 입니다.

참가하다 (Participate) - 이뜻은 다른사람들과 어떤 일이나 행사에 함께 하며 나누는것이다. 웹스터 사전은 "함께 하다 "(Partake)" 라고 풀이하고 있는데 그뜻도 나쁘지 않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것을 싫어하고, 칭찬을 나누는것도 싫어한다던지, 어떤일의 책임을 떠맡는것도 싫어한다면 당신은 이 부분은 무시하고 아마 다음 페이지로 갈것이다.

그렇지만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들은 그냥 모른척하지는 않을 것 이다. 그들은 아마 참가하고 싶어할 것 이며 시작 하고 싶어하지만, 이러한 마음의 부름에도 불구하고 참가하지 않을 회원들도 있을 것 이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좋은 활동들에 참가하는것을 배우고 다른사람들과 함께 할것이다. 이것은 개인적이나 각자 혼자 노력 보다 더 뛰어난 것 이다. 그것은 그룹의 일원으로써 같이 함께하여 문제에 달라 붙고, 새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부담을 같이 나누는 것이다. 우리는 같이 함께 일하는 가족, 형제회 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에게 아이디어, 생각을 말하며, 함께 맞대어 무엇이던지 예수님, 삼위일체,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함께하는 가족 이다! 그리고 같이 배우고, 같이 일하고, 같이 고통을 나누며, 같이

기뻐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며,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 주는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보여 주는것이다.

우리의 이웃 사마리아 사람 같이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거북이 이야기-

목 내밀었을때만 빨리 가는 거북이 주의 하세요 라고 하자, 거북이가 말한다. 아마 나는 천천히 가고 있는게 나에겐 행운이야, 왜냐하면은 엉뚱한 길로 갈수도 있기 때문에.

- 프란치스칸적 대화-

주님, 저를 당신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부탁 합니다!